



한우 비육후기 단백질 수준 최적화를 통한 사료비 절감



개발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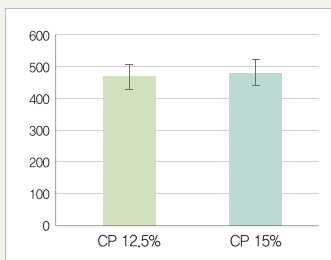
- 원료사료가격 상승 및 장기 비육(31개월)으로 한우 사료비 지속 증가
* 거세우 마리당 사료비 : ('06) 1,312천원 → ('11) 2,725 → ('17) 3,110
 - 고단백·고에너지 사료 기반의 28개월 비육프로그램 제시('18, 축산원)
 - 근육성장이 완료된 비육후기에도 고단백질 사료 급여
 - * 비육기간 단축과 동시에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단백질 급여수준의 최적화 필요
- ▶ 【해외사례】 일본의 경우, 단기비육프로그램에 비육후기 사료CP를 12.5% 제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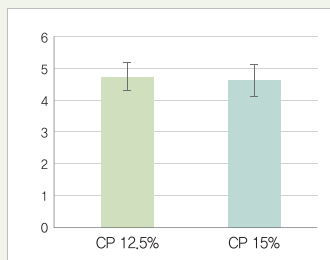
개발 기술내용

- 단기 비육(28개월) 한우 비육후기 사료 조단백질 급여 수준 최적화 : 15% → 12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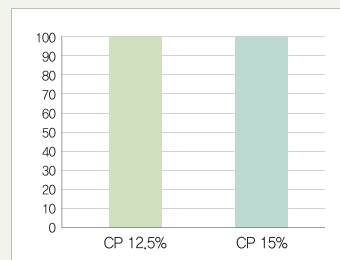
항 목	조단백질 15% 급여	조단백질 12.5% 급여
도체중(kg)	478	464
근내지방도(점)	4.7	4.6
육질등급 1 이상 출현율(%)	100	100



도체중(kg)



근내지방도(점)



1등급 이상 출현율

- 사료 단백질 수준에 따른 질소 배출량 평가
 - 조단백질 함량 15% 대비 12.5% 분뇨 내 배출량(예상치) : 9.94% 감소



파급효과

- (경제적) 최적단백질 수준 적용으로 인한 사료비 절감
 - 단백질 수준 15% → 12.5% 적용 시 사료비 약 5.7% 절감
- (사회적) 질소 배출량 감소로 환경부하 저감
 - 단백질 수준에 따른 질소배출량 차이(추정) : 9.94%